

精神科 病棟 看護業務 改善에 關한 研究

申 永 蘭

中央人學校 社會開發人學院
保健行政學專攻
(指導：閔秉根 教授)

目	次
I. 緒 論	V. 結 論
II. 調査對象 및 方法	參考文獻
III. 調査結果	영문초록
IV. 總括 및 考案	

I. 서 論

20세기 기계 물질문명의 혜택으로 우리人間은 과거 어느때 보다 더 物質의 풍요와 身體의인 평안속에서 지날 수 있게 되었으나 反面에 精神的인 면에서는 많은 不安과 갈등으로 因해 점차 神經症이나 정신병이 증가하고 있는 實情이기에 저자는 제반 정신과 施設은 물론 精神科 患者 진료요원의 수도 보다 많이 必要로 하고 있기에 기초적인 調査로 精神科 병동에 對한 看護業務를 分析, 檢討, 調査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精神病 患者는 他科의 一般 환자와 병의 양상도 다를 뿐만 아니라 精神病 患者의 看護業務도 전연 달라 精神病에 對한 概念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열증이란 주로 사고의 장애와 더불어 感情 行動 및 知的인 면에까지 장애를 나타내는 병이다. 이 病은 年少期에 發病하여 결국에는 바보가 된다고 하여 1899年 Kraepelin은 早發性痴呆라고 命名하였다. 그러나 1911年 Bleuler는 이 病이 반드시 年少

期에 發病하여 痴呆상태로 되는 것이 아님을 觀察하여 그 特徵은 精神的 機能의 분열에 있음을 強調하여 정신분열증이라는 病名을 紹介하였다.

發病 原因은 아직 明確하게 究明되지 못하고 있으나 유전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기타 諸般要因들에 依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精神分裂症의 發生頻度는 대체적으로 0.88%~1.0%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燥鬱精神病이 約 0.4% 기타 중요 정신병 등을 전부 추산하여 보면 우리나라에도 數十萬名의 精神病 患者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환자는 아직 現代 醫學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古式的인 療法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韓國動亂 以後 우리나라에도 現代 精神醫學의 많은 發展을 가져 왔으며 특히 力動精神醫學을 토대로 사회 및 心理的인 측면에서의 治療, 看護 및 豫防을 하고져 하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고로 精神病 患者의 看護 및 診療에도 過去의 傳統的인 概念과는 달리 醫師, 看護員, 社會學者, 心理學者 등 여러 分野의 專門家들이 參與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看護員의 業務가 가장 환자들과 많은 時間을 갖게 되며 또한 治療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精神病의 社會的, 心理的 및 環境的인 要因에 對한 重要性이 增加함에 따라 看護業務 亦是 이런 面을 重要視해야 하는 것은 當然하다. 特히 현대간호 업무의 傾向은 전인간 간호 (comprehensive Nursing care)를 志向하고 있는데 비하여 精神科 看護관 정신병 환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過去의 잘못된 인식은 現代看護概念에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이며 나아가서 정신과 간호학의 發展을 저해하는 重要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洪等이 발표한 文獻에서도 간호학의 教科 科目의 比重에 對한 教授들의 反應을 보면 精神科看護學이 基礎看護學 內科看護學 다음으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精神科 뿐만 아니라 全人間 看護관 現代 看護學의 理念에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故로 著者는 一般科 및 精神科 勤務 看護員들의 정신과 병동에 대한 反應, 精神科, 看護學의 教育背景, 補職에 對한 滿足度, 補職過程·補職 및 適性, 業務量, 精神科 看護員의 자격 및 特殊職 看護員의 給與 등을 조사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著者는 1974年 4月 1日부터 1974年 7月 30日까지 전국 13개 綜合病院과 1개의 精神病院에 勤務하는 看護員 總 376名을 對象으로 하여 9個의 問項으로 된 質問紙를 使用하여 調査하였다. 總 376名中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이 100名이었으며 이는 다시 國, 公立 및 私立病院으로 나누어 比較 檢討하였으며 또한 精神科 病棟에 勤務하는 看護員과 一般病棟에 勤務하는 看護員과를 比較 檢討하였다.

III. 조사결과

1) 각과 및 병실에 對한 好感度 (표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과에 勤務하고 있는 看護員들은 大體로 一般外科에 勤務하고 싶어 하는 傾向이 第一 높았으며 (17.0%) 그 다음이 手術室 (16.7%), 神經精神科 (13.0%), 內科 (12.3%), 產婦人科 (10.9%)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精神科에 勤務하고 있는 看護員들에서는 精神科에 勤務하고 싶어 하는 것이 31.0%였으며 그 다음이 手術室 (17.0%), 產婦

표 1. 각과 및 병실에 대한 호감도

	내과	인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형외과	수술실	응급실	회복실	기타	무답	총계
일반과																	
S병원	13	11	4	2	3	3		16		3		9	2	4	18		86
K병원	18	15	11	12	3		2	9		2		16	1		6		95
C병원	3	14	5	9				4		2		4		2	2		42
H병원		8	1	8				7				17	2	1	5	4	53
계	34	47	21	30	6	3	2	36		6		46	5	6	30	4	276
	(12.3)	(17.0)	(7.6)	(10.9)	(2.2)	(1.1)	(0.7)	(13.0)		(2.2)		(16.7)	(1.8)	(2.2)	(10.9)	(1.4)	(100%)
정신과																	
N병원	4	6	7	12	1	3		6				10		2	1		52
P병원		6	3	4				25		1		7	1		1		48
계	4	12	10	16	1	3		31		1		17	1	2	2		100
	(4.0)	(12.0)	(10.0)	(16.0)	(1.0)	(3.0)		(31.0)		(1.0)		(17.0)	(1.0)	(2.0)	(2.0)		(100%)
총계	38	59	31	46	7	6	2	67		7		63	6	8	32	4	376
	(10.1)	(15.7)	(8.2)	(12.2)	(1.9)	(1.6)	(0.5)	(17.8)		(1.9)		(16.8)	(1.6)	(2.0)	(8.6)	(1.1)	(100%)

() = %

N병원 : 국, 공립병원 정신과

P병원 : 사립병원 정신과

人科(16.0%)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精神科에 勤務하고 싶어하는 看護員 중에도 國, 公立病院 精神科 或은 精神病院에 勤務하는 看護員이 6%이었으며 私立病院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이 25%이었다.

2) 各科 및 病室에 對한 傾向도(표 2)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員들은 第一 勤務하고 싶지 않은 病室이 結核病室(31.5%)이었으며 그 다음이 비노기과(12.3%) 기타과(8.7%), 精神科(6.9%)의 順位였다.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들 中에서도 亦是 第一 勤務하고 싶지 않은 病室이 結核病室(58.0%)이었고, 그 다음이 皮膚科(8.0%), 비노기과(7.0%)의 順으로 一般科의 看護員과 同一한 傾向을 보여 주고 있었다. 全 看護員의 態度는 亦是 結核病室(38.5%), 비노기과(10.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3) 精神科 看護學 教育背景(표 3)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員 中에서는 學校時節에 精神科 看護學 각의와 실습을 받은 경우가 85.5%로써 第一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강의만 받고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가 10.1%이었다. 그러나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 中에서는 學校時節은 勿論 卒業後에도 精神科 看護學의 特殊教

표 3. 정신과간호학의 교육배경

	강의를 받았다 실습을 받았다	강의 만 받았다	강의 나 실습을 받았다	받은 과 없다	교육을 받았다 학문 교수 실습 수 물	총 계
일반과						
S 병원	73	7		0		86
K 병원	89	5		1		95
C 병원	35	4	2	1		42
H 병원	39	12		2		53
계	236 (85.5)	28 (10.1)	2 (0.7)	10 (3.6)		276 (99.9%)
정신과						
N 병원	12	8	5	17		52
P 병원	25	1	1	11		48
계	37 (37.0)	9 (9.0)	6 (6.0)	38 (38.0)		100 (100%)
총 계	283 (75.3)	37 (9.8)	8 (2.1)	48 (12.8)		376 (100%)

()=%

N 병원 : 국, 공립병원 정신과

P 병원 : 사립병원 정신과

표 2. 各科 및 病室에 對한 傾向도

결 핵 병 실	정 신 과 병 실	수 술 실	회 부 실	응 급 실	정 형 외 과 병 실	신 경 외 과 병 실	내 과	일 반 외 과	소 아 과	산 부 인 과	비 뇨 기 과	피 부 과	이 비 인 후 과	안 과	기 타	무 답	총 계	
일반과																		
S 병원	20	6	7	2	5		7		5	6	8	8		2	10		86	
K 병원	38	9	3	1	4	1	3		1	7	17				11		95	
C 병원	14	1		6	4		1	1	3	1	8			1	2		42	
H 병원	15	3	1	7	3	2	3	3		5	1	6		1	1	2	53	
계	87 (31.5)	19 (6.9)	11 (4.0)	16 (5.8)	16 (5.8)	3 (1.1)	14 (5.1)	3 (1.1)	1 (0.4)	14 (5.1)	14 (5.1)	34 (12.3)	14 (5.1)		4 (1.4)	24 (8.7)	2 (0.7)	276 (100%)
정신과																		
N 병원	36		2		1				2	1	5	3	2				52	
P 병원	22	1	4	2	1	1	2		1	4	2	5		1	2		48	
계	58 (58.0)	1 (1.0)	6 (6.0)	2 (2.0)	2 (2.0)	1 (1.0)	2 (2.0)		3 (3.0)	5 (5.0)	7 (7.0)	8 (8.0)	2 (2.0)	1 (1.0)	2 (2.0)		100 (100%)	
총 계	145 (38.5)	20 (5.3)	17 (4.5)	18 (4.8)	18 (4.8)	4 (1.1)	16 (4.3)	3 (0.8)	1 (0.3)	17 (4.5)	19 (5.1)	41 (10.9)	22 (5.9)	2 (0.5)	5 (1.3)	26 (6.9)	2 (0.5)	376 (100%)

()=%

N 병원 : 국, 공립병원 정신과

P 병원 : 사립병원 정신과

育을 받은 경우가 38%이고 學校時節에 강의와 實習을 받은 경우가 37%이었으며 그중 特殊教育을 받은 경우는 國, 公立系의 病院이 27%, 私立系 病院이 11%이었으며 學校時節에 강습과 實習을 받은 경우는 私立系 病院이 25%이고, 國, 公立系 病院이 12%를 보이고 있다.

學校時節에 강의만 받은 경우가 國, 公立系가 8% 私立系가 1%이며 全然 精神科 看護學 教育을 받지 않은 경우가 國, 公立系가 5%, 私立系가 1%를 나타내고 있다.

4) 補職에 對한 滿足度(표 4)

표 4. 보직에 대한 만족도

	비교적 만족	전혀 만족하지	그저 보통이다	이러한 보충이 없다	무답	총계
일반과						
S 병원	41	5	40			86
K 병원	53	3	39			95
C 병원	16	1	25			42
H 병원	26	3	24			53
계	136 (49.3)	12 (4.3)	128 (46.4)			276 (100%)
정신과						
N 병원	10		42			52
P 병원	33		14	1		48
계	43 (43.0)		56 (56.0)	1 (1.0)		100 (100%)
총계	179 (47.6)	12 (3.2)	184 (49.0)	1 (0.3)		376 (100.1%)

() = % N 병원 : 국, 공립병원정신과
P 병원 : 사립병원 정신과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員들 中에서는 只今 勤務하고 있는 곳에 비교적 滿足스럽다가 49.3%이고 그저 보통이다가 46.4%를 보이며 精神科에 勤務하고 있는 看護員들 中에서는 그저 보통이다가 56.0%이고 비교적 만족스럽다가 43.0%이었으며 그중 그저 보통이다는 國公立系가 42%이고 私立系가 14%이었으며 그대로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私立系가 33%이고 國, 公立系가 10%를 나타내고 있다.

5) 補職過程(표 5)

표 5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

표 5. 보 직 과 정

	회보망에 의해	보직 문에 받았던 인의 경해	보직 문에 받았던 인의 경해	병원이 단국대의 의보	무담	총계
일반과						
S 병원	9	22	52	3	86	
K 병원	26	24	37	8	95	
C 병원	7	3	31	1	42	
H 병원	15	12	24	2	53	
계	57 (20.7)	61 (22.1)	144 (52.1)	14 (5.1)	276 (100%)	
정신과						
N 병원	2	15	35		52	
P 병원	26	10	12		48	
계	28 (28.0)	25 (25.0)	47 (47.0)		100 (100%)	
총계	85 (22.6)	86 (22.9)	191 (50.8)	14 (3.7)	376 (100%)	

() = % N 병원 : 국, 공립병원정신과
P 병원 : 사립병원 정신과

員의 경우에서 보면 전혀 나의 意思나 專門의 背景과 關係없이 病院當局의 一方的인 補職이다가 52.1%로써 第一 높은 傾向이었으며 專門의 背景에 의해 補職받은 경우가 22.1%이며 本人의 希望에 의해 20.7%를 보이고 있으며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의 경우도 亦是 病院當局의 一方的이다가 47.0%이고 希望에 의한 補職이 28.0%, 專門의 背景에 의한 補職이 25.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國, 公立系 病院에서는 病院當局의 一方的인 補職이 35.0%, 私立系 病院이 12.0%를 보이고 있으며 希望에 의한 補職은 私立系 病院이 26.0%이고 國, 公立系 病院이 2.0%에 不過하다. 一般科 및 精神科에 勤務하는 全 看護員의 補職은 本人의 意思나 專門의 背景과 關係없이 病院當局의 一方的인 補職이 50.8%이고 希望에 의한 補職이 22.6%, 專門의 背景에 의한 補職이 22.9%로 나타나고 있다.

6) 補職 및 適性(표 6)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중에서 나의 補職은 비교적 適性に 맞다가 48.6%이고 그저 그렇다가 46.0% 보이고 있으며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중에서도 一般科에 유사하게 비교적 適性に 맞다가 51.0%이고 그저 그렇다가 47.0%이었다. 그중에서 私立

系 病院에서 適性에 맞는다가 34.0%이며 國, 公立系 가 17.0%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反對로 國, 公立系 病院이 34.0%이며 私立系 病院이 13.0%를 보이고 있다.

7) 業務量(표 7)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중에서 나의 업무량은 他科와 大同小異한것 같다가 54.7%로 第一 높았으며 他科에 비해 너무 過重하다가 29.7%, 他科에 비해 便하다고 생각되는 예가 15.2%이었으며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中에서도 他科에 業務量과 大同小異하다가 58.0%이며 他科에 비해 너무 過重하다가 32.0%이며 便하다고 생각되는 예가 9%이다. 그중에서 他科에 비해 너무 過重하다가 國, 公立系 病院이 24.0%이고 私立系 病院이 8.0%이었다.

8) 精神科看護員의 資格(표 8)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精神科 看護學의 特殊教育을 받은 看護員이 精神科 病棟에 勤務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 一般科 勤務 看護員에서 90.6%, 精神科 勤務看護員에서 98.0%로서 全 看護員에서 92.6%를 나타내고 있다.

9) 特殊職 看護員의 給與

一般科勤務 看護員 中에서 精神科나 傳染病 病棟의 같은 特殊科에 勤務하는 看護員에게는 手當을 높게 주는게 타당할 것 같다가 90.6% 나타내고 있으며 精神科에 勤務하는 看護員中에서는 96.0%를 보이고 있으며 全看護員中에서 92.0%를 나타내고 있다.

IV. 총괄 및 고안

韓國 社會에서도 精神疾患 및 精神健康에 對한 問題의 범위와 重要性에 對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아울러 精神科의 診療를 받는 患者의 數와 精神病棟 및 精神科專門醫가 증가하고 있는 實情이며 또한 精神疾患에 종사하는 간호원, 社會事業家 및 臨床心理家의 보다 많은 要員을 必要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過去의 古式인 諸般看護業務도 보다 現代 力動精神醫學에 對應할 수 있는 制度의 改善도 절실히 要求되고 있는 實情이기에 著者는 本研究를 통해 諸般 問題點을 分析, 檢討코자 하였다.

1) 各科 및 病室에 對한 好感度에서 一般科勤務 看護員에서 一般外科 手術室 다음으로 神經精神科에 對한 好感도가 높은것은 高等이 報告한 韓國 간호교육의 교과과정에 기초간호학과 내의과간호학 다음으

로 精神科看護學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現代看護學의 영향으로도 사료될 수 있겠으며 過去 專統적인 精神病이라는 概念에서부터 現代精神醫學의 總括적인 醫學이란 概念의 變遷으로 인한 反應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精神科勤務 看護員에서 보면 勿論 他科에 비해 第一 높은 31.0%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중에서 私立系 病院이 26.0%이며 國, 公立系 病院이 6.0%라는 현저한 差異의 問題點은 앞으로 더욱 研究檢討되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精神科에 勤務하고 있는 나머지 69.1%의 看護員이 他科에 好感도를 보이고 있다는 事實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問題로 생각된다.

2) 各科 및 病室에 對한 嫌惡度에 對한 反應은 全般的으로 共히 結核病室과 같은 傳染病室에 第一 높은 38.5%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一般科에 勤務하는 看護員들 중에서는 비뇨기과(12.3%), 其他(8.7%) 다음으로 精神科(6.9%)등 싫어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아직도 많은 看護員들이 좋은 看護를 제공하기에 앞서 精神疾患에 對해 오해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傾向으로 박, 김등의 보고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精神科看護學 教育背景을 보면 全 看護員의 75.3%가 學校時節의 강의와 실습을 받았으며 9.8%가 강의는 받았으나 실습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김이 지적한 국내 40개의 各급 간호계 학교에서 10개교인 25.0%가 臨床實習을 하지 못한 1972年の 報告보다는 많은 改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精神科勤務 看護員中에서 學校時節의 精神科看護學의 강의와 실습을 받은 예가 37.0%이며 學校 卒業後 精神科看護學 特殊教育을 받은 예가 38.0%라는 事實은 고려되어야 할 問題로 생각된다. 精神科看護學의 特殊教育을 받은자와 받지 않은 者에 對한 Murray의 調査나 Reznikoff의 報告를 보면 經驗이 있는 看護員에서 철저한 자비심이나 患者에 對한 態度 全般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樹立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先進國에서 精神科 其他 特科의 看護學은 一定期間 教育을 받게 하는 制度가 이미 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統一된 制度等이 없다는 事實도 改善을 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精神科勤務 看護員의 特殊教育 經驗이 있는 38.8% 中에서 國, 公立系가 27%이고 私立系 病院이 11%라는 현저한 差異도 연구검토 및 改善되어야 할 問題로 생각된다.

4) 補職에 對한 滿足도를 보면 一般科勤務 看護員과 精神科勤務 看護員間에 현저한 差異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精神科勤務 看護員中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43.0%中 私立系 病院이 33.0%이며 國, 公立系 病院이 10.0%라는 현저한 差異와 反面 그저 그렇다는 예가 國, 公立系 病院이 42.0%이고 私立系 病院이 14.0%라는 현저한 差異等은 대우문제, 업무상 시설등 여러 가지 原因에서 起因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問題도 앞으로 더욱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Harry Stack Sullivan은 모든 人間의 基本的인 慾求是 生物學的인 滿足感和 社會的인 安定感에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精神科疾患 患者를 看護하는 看護員 自身の 滿足感和 安定感은 무엇보다 더 先行되어야 할 問題로 생각되는 것이다와 같은 基本的인 條件이 결여된 不安定과 不滿이 있는 看護員은 患者의 安定感和 滿足感を 圖謀할 수 없을 것은 當然之事인 것이다.

5) 補職過程을 보면 一般科勤務 看護員 및 精神科勤務 看護員 共히 專門的인 教育經歷이나 經驗에 관계없이 病院當局의 一方的인 補職이다가 50.8%로서 第一 높은 傾向은 亦是 우리 나라의 看護 人事行政의 問題點을 반영하여 주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좀더 研究檢討와 아울러 改善되어야 할 問題로 생각된다. 이러한 現象은 精神科勤務 看護員의 47.0% 경우에서 國, 公立系가 35.0%이고 私立系가 12.0%로 國, 公立系 病院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와는 反對로 私立系 病院에서는 오히려 專門的인 教育經歷 보다 더 本人의 希望에 依한 보직이 26.0%이며 國, 公立系 病院이 2.0%로 현저한 差異로 亦是 改善되어야 할 問題點으로 해석된다.

6) 補職 및 適性を 보면 一般科勤務 看護員이나 精神科勤務 看護員 共히 비교적 適성에 맞는다가 各 各 48.6%와 51.0%를 보이고 全體의 49.2%를 나타내고 있으나 精神科勤務 看護員의 경우에서 보면 國 公立系가 17.0%이고 私立系 病院이 34.0%로써 월등히 높은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傾向 亦是 研究檢討 및 改善되어야 할 問題點으로 생각된다.

先進國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某某 病院은 勿論, 큰 會社나 기업체에 入社前에 人性檢査를 위시해 적성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본다면 看護員이란 專門職을 採用하는데 있어서 當然히 施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業務量에 관한 反應을 보면 一般科 및 精神科

勤務 看護員 集團에서 共히 他科의 業務量과 비슷한 것 같다가 各 各 54.7%, 58.0%로서 유사한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全 看護員에서 55.6%로써 第一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精神科勤務 看護員中에서는 他科에 비해 너무나 過重하다는 32.0%中에서 國, 公立系 病院이 24.0%이고 私立系 病院이 8.0%란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金의 報告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看護員의 절대적인 人力不足은 언급할 여지가 없겠으나 그러나 것처럼 國, 公立과 私立系 病院間의 현저한 差異가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全 人間 看護가 重要視되고 있는 精神科 看護단 Haward Roweder도 언급한바와 같이 적절한 身體의 看護는 勿論 各 患者의 個性을 表現하게 하고 이해시키며 患者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노출시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故로 精神科勤務 看護業務量은 他科와 다른 지도에서 業務量이 검토되어 져야 할 것이다.

8) 精神科 看護員의 資格에 對한 反應을 보면 一般科 및 精神科勤務 看護員 共히 精神科 看護學 特殊教育을 받은 看護員이 좋겠다가 各 各 90.6%와 98.0%로써 全 看護員 集團에서 92.6%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國, 公立系 및 私立系 病院間에도 同一한 傾向을 보여 주고 있으며 再論의 여지가 없이 우리 나라에도 하루 속히 施行되어 지기를 바라는 바다.

9) 結核病室과 같은 傳染病棟이나 精神科 病棟과 같은 곳에 勤務하는 特殊職 看護員에게는 一般科勤務 看護員에 비해 手當을 支給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가 一般科勤務 看護員에서 90.6% 精神科 勤務 看護員 中에서 96.0%로 全 看護員에서 92.0%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傾向 亦是 看護業務 改善方案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先進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制度로써 하루 속히 우리 나라에도 施行되기를 바라는 바다.

V. 결 론

著者は 1974年 4月1日부터 1974年 7月30日까지 全國의 13個 國, 公, 私立系 綜合病院과 1個의 精神病院에 勤務하는 看護員 376名을 對象으로 한 精神科病棟 看護業務에 對한 諸般 問題를 調査, 研究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一般科勤務看護員들 중에서 精神科에 對한 好感度는 13.0%로써 一般 外科 手術室 다음이었으며 精神科勤務看護員들 중에서는 精神科 對한 好感度를 보인 것이 31.0%로써 第一 높았으며 그중 私立系 病院이 25.0%이며 國, 公立系 病院이 6.0%였다.

2. 各科 및 病室에 對한 嫌惡度を 보면 全看護員에서 共히 結核病室과 같은 傳染病棟이 38.5%로써 第一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一般科勤務看護員들 중에서는 精神科에 對한 嫌惡度도 6.9%를 보이고 있음.

3. 精神科看護員의 教育背景은 一般科看護員中에서는 精神科看護學講義 및 實習을看護學校時節에 받은 者가 85.5%이며 精神科看護員中에서는 卒業後 特殊教育을 받은 者가 38.0%이었다.

그중 特殊教育을 받은 자는 國, 公立系가 27.0%로 私立系 病院 11.0%에 비해 높은 傾向을 보여 주고 있었다.

4. 補職에 對한 滿足度는 一般科勤務看護員과 精神科勤務看護員間에 有의한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精神科勤務看護員 중에서는 比較적 만족스럽다가 私立系 病院이 33.0%이고 國, 公立系 病院이 10.0%로써 현저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5. 補職過程은 病院當局의 一方의인 補職이 全看護員의 50.8%로써 第一 높았으며 이러한 現象은 精神科勤務看護員 47.0%中에서 國, 公立系 病院이 35.0% 이었으며 私立系 病院이 12.0% 이었고 反對로 本人의 希望에 依한 補職은 私立系 病院이 26.0%이며 國, 公立系 病院이 2.0%이었다.

6. 補職 및 適性を 보면 一般科 및 精神科勤務看護員 共히 比較적 適성에 맞는다가 各各 48.6%, 51.0%이며 그중 精神科勤務看護員 中에서는 私立系 病院이 34.0%이고 國, 公立系 病院이 17.0% 보이고 있다.

7. 業務量에서 亦은 一般科 및 精神科勤務看護員 共히 “他科의 業務量과 비슷하다”가 54.7%, 58.0%로써 유사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精神科勤務看護員들 中에서는 “他科에 비해 너무나 過重하다”가 國, 公立系 病院이 24.0%이고 私立系 病院이 8.0%이었다.

8. 精神科看護員의 資格에 對한 反應에서는 一般科 및 精神科勤務看護員 共히 “精神科看護學 特殊教育을 받은 看護員이어야 한다”가 90.6%, 98.0%로써 全看護員 中에서 92.6%를 보였다.

9. 結核病室이나, 精神科病室과 같은 곳에 勤務하는 特殊職看護員에게는 手當을 支給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가 一般科 및 精神科勤務看護員 中에서 各各 90.6%, 96.0%로써 全看護員의 92.0%를 나타내고 있었다.

참고 문헌

1. Kold, L. C.: Modern clinical psychiatry, ed, by Kolb, L. C, pp.309-310 8th ed,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73.
2. Freedman, A.M, et al,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p.218, The William & Wilkins co, Baltimore, 1972.
3. 유석진, 침자법에 의한 1, 2 농촌지역에서의 정신질환 발생빈도 조사에 관한 조사, 대한신경학회지, Vol. 1, No.2, 1962.
4. 민병구, 조울병의 역학, 대한신경정신학회지, Vol. 13, No.2, 1973.
5. Bridgman, Magaret, college Education for Nursing,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53
6. Brown, Army Frances, Curriculum Development, Philadelphia, W. B. Saunder Co., 1960.
7. Burd, Mashall, Same Clinical Approaches to psychiatric Nursing, New York, Memillan Co., 1967.
8. 홍신영외, 한국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968년도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69, p.19.
9. 박혜숙, 비정신과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 3권 2호 pp.31-43, 1973.
10. 김소야자,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 대학생과 간호학교 학생들의 태도 비교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4권 2호, pp.17-29, 1974.
11. 김수지, 정신과 간호학 임상실습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1권 1호 pp.33-52, 1972.
12. Ruth Murray, Attitude of professional nonpsychiatric nurses toward mental illness, J, psychiat Nur, Vol 7, pp.117-123 1969
13. Marvin Reznikoff etc Attitude toward the Psychiatric milieu, An interhospital comparison

- of nursing Personal attitude, Nur, Res, Vol. 13, No.1, pp. 71-72, 1964
11. H. S. Sullivan, Concept of Mordern Psychiatry William Alanson White Foundation Washington 1917.
15. 김순자, 임상간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 제12권 5호, pp.73-82, 1973
16. Roweder, A ,W. et al. Support in Nursing. A. J. N. Vol.59, pp.1393-1401, 1959.

***Abstract ***

Studies on Improvement of the psychiatric Nursing

Young Ran Shin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 Ang University

(Director: Prof. Byung Kun Min M. D.)

Author studied on various psychiatric nursing problems applying with the test of questionnaire to the 376 nurses who are attending at 13 general hospitals and one mental hospital in Korea from Apr. 1, 1974 to July 30, 1974.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13.0% of nonpsychiatric registered nurses wanted the psychiatric service for their most attractive assignment and this was the 3rd in order next to the general surgical and operating room.

Among the psychiatric nurses, the popularity toward psychiatric ward was 31.0% and they were 26.0% at the private general hospitals and 6.0% in national public hospitals.

2. The feelings or attitudes of disgust and apprehension on nursing care of the patients afflicted with infectious diseases were the highest responses (38.5%) and these trends were also appeared in 6.9% of psychiatric nurses.
3. 85.5% of nonpsychiatric registered nurses have had received course lectures on psychiatric nursing and nursing care training on the psychiatric ward at their school of nursing. 38.0% of psychiatric nurses had received post graduate psychiatric nursing and they were higher in national public hospitals (27.0%) than in private general hospitals (11.0%).
4. The responses of satisfaction and security on their employment were almost similar patterns between nonpsychiatric registered nurses and psychiatric nurses. But, among the psychiatric nurses, they were more satisfied at private general hospitals (33.0%) than that of national public hospitals (10.0%).
5. Almost the half of the nurses (50.8%) were employed by the hospitals without considering their past educational or clinical experience or career.
Among the psychiatric nurses, who were employed by hospitals without considering their past experience or career were 35.0% in national public hospitals and 12.0% in private hospitals.
On the contrary, the nurses who were employed by their wishes were more higher (26.0%) in private general hospitals than national public hospitals (2.0%).
6. The nurses who thought their employment was fit for their aptitude were 48.6% in nonpsychiatric registered nurses and 51.0% in psychiatric nurses. Among the psychiatric nurses, this response was higher in private general hospitals (34.0%) than the national public hospitals (17.0%).
7. Responses on work loadings of nurses showed almost same patterns between nonpsychia-

tric registered nurses and psychiatric nurses. But, among the psychiatric nurses who felt much heavier than the nurses of other part were 24.0% in national public hospitals and 8.0% in private general hospitals.

8. 92.6% of nurses felt that the psychiatric nurses should have post graduate training in psychiatric nursing prior to their assignment.
9. 96.0% of nurses agreed to the risk coverage on the payment for the nurses assigned to the psychiatric ward and the ward for infectious diseases.